

朱晦庵과 李退溪의 서원교육론 비교**

丁 淳 睦*

• 目 次 •	
I. 導 言	III. <白鹿洞規>와 <伊山院規>의 敎學 精神
II. 書院敎育必要說에 관한 晦·退의 견해	IV. 晦·退 書院敎育運動의 차이점
	V. 結 言

I. 導 言

南宋의 朱晦菴(熹 1130~1200)과 조선 이퇴계(滉 1500~1570)의 70년 생애落差는 3백년이다. 그러나 그들이 살던 시대와 지역이 相隔한 것처럼 그들의 삶과 앎의 태도가 그리 현격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각기 성리학적 세계질서를 추구하면서 동심원적인 인간의 보편가치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함께 추구하고 지향하던 성리학적 세계질서는 중세적인 常變論에서 <常>을 추구하고 유가적인 당위론에서 <經>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퇴계가 일생동안 변함없이 晦菴을 그의 삶과 앎의 준칙으로 삼은 것은 '회암' 이야말로 「常·經」의 준거 인물 또는 동일시 인격이었기 때문이다.

晦·退의 서원교육운동은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교육철학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전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작고)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53호(1987) 게재논문

그간 퇴계의 서원교육운동이 조선 사학 아카데미즘의 연원이 되었다고 지적된 바 있고(李佑成 1978:203~210) 그 교육사상과 교육제도 사적 측면이 고찰되기도 하였다(丁淳睦, 1979).

이 글에서는 晦退二賢의 서원교육관 및 그 실행의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이동점을 살핍으로써 韓中비교 교육사에 있어서 문화접변의 모습을 소묘코자 한다.

서원이라는 같은 이름 아래, 두 나라의 서원은 교육이념의 동질성이 짙을수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운영의 형태는 크게 달랐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두 나라 문화의 개성적 표현이 보편적인 세계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정신의 旅券이기 때문이다.

II. 書院教育必要說에 관한 晦·退의 견해

(가) 宋代 書院略史(晦菴以前)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서원」 역시 그 시대가 역사에 응답하는 필연적인 하나의 「발명」이다(丁淳睦, 1979:11).

중국에 있어서 서원의 명칭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당 현종 때이다. 「麗正書院」과 「集賢書院」이 그때 세워졌으나, 이 서원은 후대의 성격과는 다른 일종의 도서관 또는 서재의 성격을 지녔다. 「修書」하는 곳이고 「肄業」하는 곳이 아니었으므로, 학교의 성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송나라초에 이르러 이른바 천하의 四大서원이 생김으로서 송대의 서원은 정착하기에 이른 것이다. (古今事文類聚, 續集권8)「世亂失學」하던 세대로 선비들은 산림과 幽谷을 찾아 독서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保身立命하려는 뜻도 있었지만 당시에 유행하던 「禪林精舍」와 같은 불교의 영향도 있었다. 그러다가 국가질서가 차츰 바로잡히게 되자 과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士子들은 藏修의 뜻은 무너지고 세속적인

名利를 얻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관학이 융성하였으며 산림을 찾던 선비는 閭巷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北宋의 崇寧 말년(徽宗 1~5)년에 이르러서는 서원이라고 부르는 學舍가 모두 없어져 버렸다. 그러다가 南宋 말년에 이르러 뛰어난 성리학자들이 講學을 위한 齋舍를 짓고 서원을 부흥시켰으며 서재나 도서관과 같은 초기의 성격을 탈피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목을 일신시켰다.

南宋의 최초의 서원인 白鹿洞서원의 院規가 천하의 본보기로서 알려지게 되자 성리학연구의 본령이 서원교육에 있다는 것을 士子들은 차츰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산림에 있는 老師宿儒들은 찾는 무리가 구름같이 몰렸다. 그리하여 寧宗·理宗代 <1190-1264>에는 서원은 官立의 성격을 지닐 정도로 위정당국의 보호 받았으며, 理宗·淳祐(1241~1252)年間에는 그 최대한의 발전을 보았으며, 이때 조정에서는 賜額·賜書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서원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정치·경제적인 배경아래서 논의될 수 있다. 당시 중국사회는 小農的인 생산형태를 위주로 하는 봉건관료적인 지배체제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갖는 최대의 관심사는 통치의 철학이고 통치방법에 관한 「근거」를 찾는 일이었다. 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었던 통치근거가 교육과 정치를 한데 묶는 정치합일이었던 것이다. 유교의 明人倫은 상하질서의 명분을 정당화시켜 주었으며, 천인합일론은 天理와 人欲을 나누어서 봉건정치 아래서의 백성을 선량하고 유순하게 馴致시키는 이론이 되었다.

송대의 서원은 초기의 조선서원이 주력하였던 「사회에 의한 일시적인 도피」라거나 중기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향리지주계급의 계층보위적인 수단」으로서의 존재이유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송대의 서원은 私人講學이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學我(관학)의 별종이었으며 「掄取治人之律」을 위한 보조학교로서의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송대의 서원은 조선의 서원이 향교와 대립된 것과는 달리 학교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상호 협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양자는 정치적인 도구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정치지망 「엘리트」들이 뒷날 그들의 신분에 알맞는 사회적 지위를 마련하기 위한 입신의 대기소였다. 이같은 밀월관계는 명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명대에 이르러 서원유생들이 명분론에 집착한 나머지 때때로 정치문제에 개입하고 드디어 관학과와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서원毀撤문제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이로 보아 송대의 서원은 조선서원과 다른 별다른 변천의 생리를 지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丁淳睦, 1979:40~42).

(나) 晦菴의 書院教育의 必要論

‘회암’의 서원교육운동은 첫째로 유가적 교육목적관의 확립책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金의 猛攻으로 상처를 받은 민족정기를 쇠신시키려는 것이었다.

회암이 서원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것은 淳熙 5년(1178)에 南康軍의 知事가 되고난 뒤부터이다. 그는 부임¹⁾한 뒤 唐·李渤의 서원舊址를 답사하고 또 여러가지 고증을 거친 뒤²⁾ 서원재건에 진력하게 되었다³⁾.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동기는 그의 우환의식의 결과이며 이는 金에 의한 송왕조의 南渡라는 국가적 사건과 관련된다. 建炎·紹興 年間(1127~1162)의 시대풍조는 국난에 휩쓸린 충

1) 朱子は 初仕退歸하여 은거 20년 뒤인 49세 시에 南康軍主로 拜命, 두 번이나 사퇴하였으나 道伴인 張南軒(栻)·呂東萊(祖謙)의 권유로 50세 되던 3월에 부임하고, 52세 閏2월까지 3년간 재임하였다.

2) 白鹿洞史에 대한 참고문헌으로는 《國朝會要》,《南康軍圖經》,〈慮山記〉(陳舜愈),〈書院記〉(郭祥正) 및 石刻 등이다.

3) 백록동서원재건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白鹿洞賦〉(文集, 권1)
- 〈繳納南康任滿合奏稟事件狀〉(4) (文集, 권16)
- 〈申修白鹿洞書院狀〉(文集, 권30)
- 〈白鹿洞書院揭示〉 (文集, 권74)
- 〈跋白鹿洞所藏漢書〉(文集, 권81)
- 〈白鹿洞牒〉(文集, 권99)

신·의사를 현창하는 일이었고⁴⁾ 당시 성리학(周·程子)은 국가에 의하여 탄압을 받았으나 일반 학자들의 尊崇은 크게 떨쳐 송대四子들의 優游講學하던 모습을 사모하였다. 이러한 시대 풍조는 서원부흥의 계기가 되었는데, 건도원연(1165)에 知州 劉洪의 의하여 潭州(湖南者)의 嶽麓書院이 재건되고 회암이 記를 贊하고 張栻이 書하였다.

주자철학의 탄생은 이민족(金)·이종교(佛)에 대항하는 민족철학의 성격이 특색이지만(丁淳睦, 1986:19~34) 회암·남헌과 같은 도학제자는 국가의 위기는 土風의 衰微에서 왔다고 보아 科弊를 지적하고 관학의 형식주의를 배격하였으며 의리의 학문을 단명하였다.⁵⁾

두번째로 척사위정관에서 서원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異國의 종교인 불교가 천하를 편만하게 되고 彝倫의 현실의식을 지니는데 있어 너무 출세간적이므로 중화문화와 중화질서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백록동이 있는 여산은 원래 백연사 이래로 수많은 불사의 叢林이었다. 회암은 佛老에 대항하는 길은 도학을 흥기시키는 길밖에 없고 이러한 힘의 근원은 이미 무기력한 관학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아 백록동을 거점으로 하여 새로운 민족사상의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朝野가 이미 州縣學이 있는 터에 서원을 별도로 세우려는 것은 관비를 낭비하는 것이라 하여 반대하였으나 수많은 불사재건의 실례를 들어 강행하였다.⁶⁾

4) 《宋史, 忠義傳》에 실린 269人 가운데 121인이 南瀛時에 순국한 사람이다. 회암 역시 남강군 출신의 충신 효자·義夫·節歸의 사적을 조사하여 表章하였다.

5) 晦菴은 <學校貢學私議>(文集, 69)에서 (師生相視漠然如行路之人間 相與言亦未嘗開之以德行道藝之實 而月書季考者 又祇以笑其嗜利 苟得胃味無恥之心殊非國家之所以立學教人之本意也)라 하였으며, <諭諸生>(文集, 권74)에서도 (自學絕而道喪至今十有餘年 學校之官有教養之名 而無教之養之之實 學者挾筴而相與嬉其間其傑然者 乃知以千祿利爲事 至於語聖賢之餘旨究學問之本原

6) [繳納南康任滿合奏稟事件狀(4)]
(…)按考此山老佛之祠蓋以百數兵亂之餘次第興葺鮮不復其舊獨此儒館奔爲荆榛雖本軍已有軍學足以養士 然此洞之興遠自前代累聖相傳眷顧光寵德意深遠理不可廢況境內觀寺鐘鼓相聞殄棄彝倫談說空白未有厭其多者而先王禮儀之宮所以化民成俗之

세째로, 서원교육은 현실적인 교육시폐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도학이 絶喪된지 천여년, 利祿에 급급하여 교육의 본원을 잊어버리게된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師道の 부재에 있고 이차적인 책임은 第職의 不完에 있었다고 진단한다(學校貢學私議)·(注 5참조).

따라서 師生禮는 무너지고 덕행과 도예의 實이 없어져서 月書나 季考 같은 평가제도마저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를 방어하자면 무엇보다 의리의 학문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論諸生) (注 6 참조).

그리하여 회암은 참된 학문이란, 記覽만을 위한 문장교육이 아니라 「義를 바르게 하고, 道를 밝히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⁷⁾ 서원교육은 바로 義理之學의 淵藪라고 확신하였다.⁸⁾

(다) 朝鮮書院略史(退溪以前)

필자는 조선서원의 錄起로 고구려의 국당이나 고려의 십이공도까지 소급하여 고찰한 바 있으나(丁, 1979:6~11) 본연의 서원은 조선시대에 와서 등장하였다. 서원의 발달은 대개 강학기관으로서의 「精舍」와 제정기관으로서의 「祀廟」가 하나로 통합되는데서 그 형식과 내용이 갖

本者乃反寂寥希闊合軍與縣僅有三所而已 然則復修此洞蓋未足爲煩於是始議卽其故基度爲小屋二十餘間教養生徒一二十人節縮經營今已了畢(文集 권16)

[申修白鹿洞書院狀]

……洞之書院遂廢累年於今基也地理沒近因搜訪乃復得之。 竊惟廬山山水之勝甲於東南老佛之居以百數十 中間雖有廢壤今日鮮不與葺獨此一洞乃前賢舊隱儒與精舍又蒙聖朝恩賜褒顯所以惡養一方之士德意甚厚乃廢壤不修至於如此長民之吏不得不任其責除已一面計置量行修立外竊緣上件書院功役雖小然其名額具載國典則其事體似亦非輕若不申明乞賜行下(文集, 권30)

- 7) <白鹿洞書院揭示跋>(文集 권74)에 「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 以釣聲名 取利 祿而已」라 하였고 <白鹿洞規>에도 「正其義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이라 하였다.
- 8) 朱子가 南康軍에서 去官하기 두 달 전에 陸象山이 방문하였다. 이 때 朱子는 象山에서 「義理之辨」의 특강을 청하였다. 이에 象山은 <君子喻於義·小人喻於利>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는데, 이를 들은 章甫들은 「至有泣下」할 정도로 감동하였다고 한다(丁淳睦, 1979:55).

추어졌다. 중종 38년(1543)에 주세붕에 의하여 백운동서원(경북순흥)이 창립된 것이 효시이다. 그 뒤 명종 5년(1551)에 이퇴계의 건의로 백운동서원이 국가공인의 賜額서원이 된 이래 명종대에 29개 서원, 선조대에 124개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퇴계의 서원관은 「精舍」의 교육적 확충으로 이해한 것이 특색이다.

(라) 退溪의 書院教育必要論

퇴계 역시 <世亂失學>이라는 16세기 조선의 시대인식에서 서원운동을 창도하였다(丁淳睦, 1979 : 59~64) 퇴계는 사회기와 당쟁기의 분기점에 삶을 접지 받았고 그 자신 사회에 연루된 바는 없었으나 가정적으로는 家兄 滄(大司憲)가 被禍되었다. 퇴계는 科宦의 길이 그대로 교학의 목적이 되고 利祿의 학문이 사림의 수난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절감하였으며, 조광조 등에 의한 이상적인 至治主義가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좌절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다.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은 송조의 강남, 강북파의 사회경제적 기반 대결과는 다른 지배계층의 자기도태작용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在地土族은 네 차례의 사회를 거치는 동안 겉으로는 일패도지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정권획득에 성공하였다. 퇴계시대 이후에 오는 당쟁은 정권 획득자인 사림파간의 재분화과정이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퇴계의 서원운동의 성격은 17세기 중기 서원의 성격과는 일차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 퇴계 시대의 서원은 근본적으로 斯文의 진흥과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강학위주의 기능을 지닌 반면에, 17세기의 중기 서원은 강학기능 대신에 祭享優位였고 이는 서원이 濫·疊設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自黨의 학문적인 정통성이 곧 서원 수에 의하여 과시되는 까닭에 주자학적 명분론을 앞세워 文廟從祀와 書院亭祀는 바로 당권의 척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사회적 정세는 양반계층들이 鄉風糾正을 앞세워

향권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서원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벌과 지벌에 인연을 맺으려면 우선 그들 양반 자신들의 문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문벌은 향촌의 지배층으로 존속하기 위한 상징이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문벌유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문벌의 상징조작을 위해서는 자기 조상을 發闡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여기에 서원의 증설·남설이 불가피하였고 이렇게 일단 형성된 문벌은 양반상호간의 통혼권의 유지와 확대로써 지속적인 지위유지책이 도모되었다(丁淳睦, 1979:30~31).

퇴계의 서원건립운동은 위와 같은 서원의 폐단이 露呈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퇴계의 창설이라고 할 수 있는 伊山서원(경북, 영주)의 경우에 잘 나타나고 있다.⁹⁾ 퇴계의 「伊山書院記」에 의하면, 이산서원은 군수 안상이 부임한 뒤에 郡治六七里許에 있는 「蕃川一峴」에 있었는데 32칸이 되는 서당이 낙성되기는 1558년(무오) 7월이었고 착공한 지 4朔만이다. 「養正堂」이라는 居接의 장소를 옮긴 것도 이 때이다. 처음에는 강학을 위한 서당의 성격을 지녔으나 퇴계는 「이산서원」·「伊山書院詠」을 지어 서원이라고 불렀으며 이것은 「校」와 「祀」가 하나로 통합되기 이전의 서원성격을 퇴계가 구도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퇴계시대의 서원은 곧 사립학교였음을 알 수 있다.

관학인 향교의 교육은 「환경의 교육성」이라든지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원과 비교될 수 없었으며(丁淳睦, 1979:65~67) 퇴계가 본 바로는 당시 군현의 향교는 한갓 문구만 차려놓았을 뿐 교육은 크게 무너져서 선비들은 향교에 다니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풍조였다(上沈方伯書). 환경이 좋은 곳에서 정신적 자유를 누리면서 學今の 拘礙나 과거공부의 폐단이 없는 서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⁰⁾

9) 이 서원이 퇴계를 享祀한 것은 宣祖 6년(1573)이고 그 이듬 해에 賜額서원이 되었다. 퇴계는 「書院十詠」에서 伊山서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地靈入傑數龜城 瓶立儒宮事亦貞
諱避下須生院號 絃歌猶待樹風聲

10) 퇴계는 <上沈方伯書>에서 「서원교육이 흥성하게 되면 學政의 퇴폐를 구할 수

Ⅲ. <白鹿洞規>와 <伊山院規>의 敎學精神

회암의 白鹿洞規¹¹⁾는 유학교육헌장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도 이 같은 류가 전혀 없었던 바는 아니었지만(胡■의 「湖州學舍規則」) 이들은 대부분 煩瑣한 별칙을 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암의 白鹿洞規는 별칙을 전부 없애고, 다만 인간윤리의 당위와 인간심성의 도덕적 범칙성을 강조하여 경전의 교육적 잠언을 취록한 것이 특색이다. 이같은 풍조는 張栻·呂祖謙같은 朱熹와 「乾道·淳熙의 道友」들이 지닌 교육관이기도 하다. 특히 여조점은 乾道 4~6년(1168~1170)에 3차에 걸쳐 <學規>를 제정하였는데(呂太史文集, 卷一) 이들 세 종류의 學規는 모두 종래의 별칙 위주를 벗어난 인륜도덕중심의 것이다.

주회암의 白鹿洞規의 細則은 「程董二先生學則」¹²⁾이 準用되었는데, 퇴계는 서원교육원리로는 白鹿洞規를 그대로 쓰고 서원교육방법으로는 伊山院規를 따로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퇴계 이후 조선서원의 전범이 된 것이다.

회암은 「白鹿洞規後叙」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옛 성현이 교학하려는 뜻은 의리를 講明하여 그 몸을 닦은 연후에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려 함이니, 한갓 博覽·強記에 힘써 詞章으로 이름을 날리고 祿利를 취하려 함이 아니었다. (古昔聖賢所以敎人爲學之意, 莫非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 以

있으며 배우는 사람이 的依할 바가 있고 士風이 크게 변하고 습속이 날로 아름답다워져서 王化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擬與豐基郡守論書院>에서는 「아, 서원은 무엇을 하려고 세운 것인가. 尊賢講道하기 위함이다. (...) 그러나 나라의 四維가 橫決하여 山移海翻한 것 같아 그 끝을 알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서원의 근심일 뿐이겠는가』 하였다.

- 11) 달리 <朱子白鹿洞教條>·<白鹿書院教規>·<白鹿洞書院提示>라고 불리우나 퇴계는 《성학십도》에서 <第五白鹿洞規圖>라 하였다. 그리고 <胡文敬續白鹿洞學規>와 <白鹿洞講義>가 있다. 張伯行의 《學規類編》 참조.
- 12) 鄉先生인 程은 程端蒙, 董은 董銖, 晦菴, 「跋程董二先生學則」(朱子文集, 권82)이 있다.

釣聲名, 取利祿而已)

오늘의 학자는 이와는 반대이다. 성현들의 教人之法은 경전에다 갖추어 있다. 뜻 있는 선비는 마땅히 숙독·심사하여 問辨을 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理의 당연함을 알아서 그 몸을 책하고 마땅히 이를 따른다면, 規矩·禁防을 어찌 남이 베풀어 주기를 기다릴 것인가. (今之爲學者, 旣反是矣, 然聖賢所以教人之法, 具存於經, 有志之士, 固當熟讀深思而問辨之, 而責其身以必然, 則夫規矩禁防之具, 豈待代人之設而後, 有所持循哉).

근세에 학교에 규약이 있으나 학자를 대함이 천박하고 또 그 법이 반드시 옛 사람의 뜻이 아니므로 이제 이 학당에서는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특별히 성현의 教人爲學하는 大端을 큰 조목들을 취하여 門위 현판에 게시하니 아래와 같다(近世於學有規 其待學者爲己淺矣, 而其爲法, 又未必古人之意也, 故今不復施於此堂, 而特取凡聖賢所以教人爲學之大端, 條例如右, 揚之楣間)

諸君은 서로 다투어 講明하고 준수하여 몸으로 실천하면, 思慮·언행에 있어서 戒謹·恐懼할 바가 반드시 저보다도 더욱 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禁防의 범위를 벗어남이 있다면, 이른바 저 규약을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며 略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제군은 잘 생각할지이다. (諸君相與講明遵守, 而責之於身焉, 則夫思慮云爲之際, 其所以戒謹恐懼者, 必有嚴於彼於者矣. 其有不然, 而或出於禁防之外, 則彼所謂規者, 必將取之, 固不得而略也, 諸君其念之哉)

퇴계는 그의 학문생애의 결정인 「進聖學十圖劄」의 第五圖 「白鹿洞規圖」를 해설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¹³⁾

13) 「進聖學十圖劄」, (第五白鹿洞規圖), 「退溪全書」(上), p.204.

(右規朱子所作以揭示白鹿洞書院學者 洞在南康軍北址匡廬山之南 有唐李渤隱于此 養白鹿以目隨因名 其洞南唐建書院 號爲國庠 學徒常數百人 宋太宗頒書籍 官洞主以寵勸之中間蕪廢 朱子知南康軍請于朝 重建聚徒設規倡明道學 書院之教 遂益于天下 臣今謹依規文本目作次圖以便觀省蓋唐虞之教在五品 三代之學皆所以明人倫 故規之窮理力行皆本於五倫 且宰王之學 其規矩禁防之具 雖與凡學者 有不能盡同

이는 주자가 「백록동규를 지어서 백록동서원학자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백록동은 남강군 북광 여산 남쪽에 있는데 당나라 때 ‘李渤’ 이 여기에 은거하면서 흰 사슴을 기르고 自適하였기로 그 洞名이 된 것입니다. 남당 때에 서원을 세우고 이름하여 國庠이라고 하였는데, 학도가 항상 수백명에 이르렀습니다. 송나라 태종이 서적을 내리고 洞主에게 관직을 수여하여 寵勸하였습니다만, 중간에 황폐하게 되어 朱子께서 남강군태수로 있을 때에 조정에 대하여 이를 중건하고 학도를 모아 규약을 베풀고 도학을 창명하게 되니 비로소 서원의 교가 천하에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가 규약의 글에 있는 본래의 조목에 便하고자 합니다.

대체로 당우의 가르침은 五品(五倫:筆者註)에 따라 그림을 그려 있고 삼대의 배움은 다 인륜을 밝히는 것이므로 규약의 공리와 역행도 다 인륜을 그 근본으로 하였습니다. 제왕의 學은 그 規矩와 禁防의 그릇이 비록 일반 학자와 모두 같을 수는 없사오나 이륜에 근본하여 공리 역행함으로써 心法의 긴요한 곳을 얻으려함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五圖는 천도에 근본하여 인륜을 밝히고 덕업을 힘쓰는 데 그 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회암의 洞規는 大經大道로써 조선의 모든 학교기관에 제시되고 讀誦되었으며 서원교육 또한 이념과 부합한다. 그러나 伊山院規는 중국의 「程董二先生學則」·「西山先生教子齋規」·「麗澤堂學約」등과 비교하여 보다 完實하다고 생각된다. 서원교육의 근본 이념은 회암이 이미 摘記한 맹자·중용의 정신을 이어받았지만 그 운영과 실천방법에 있어서는 독자적이었음이 증명된다.¹⁴⁾

者 然本之彝倫 而窮理力行以求得 夫心法切要處未嘗不同也 故拜獻是以備朝夕摯御之箴 以上五圖本於天道而功在明人倫懋德業)

14) 퇴계의 <伊山院規> 全文은 다음과 같다.

一, 유생들이 독서하는 데는 四書五經으로 본원으로 삼고, 小學·家禮를 門戶로 삼아서, 나라의 선비를 양성하는 방법을 좇고, 성현의 친절한 교훈을 지켜만가지 착한 것이 본래 내게 갖춘 것임을 알고 옛 도리가 오늘날에도 실천될 수 있음을 믿는다. 모두 다 힘써 몸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며, 體를 밝히고 用을 적합하게 하는 학문을 할 것이며, 諸史子集, 文章, 科學의 業도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옆으로 널리 통하도록 힘쓸 것이나, 마땅히 內外·本

末·輕重·緩急의 차례를 알아서 항상 스스로 격려하여 타락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나머지 간사하고 요망하고 음탕한 글을 모두 院內에 들어 눈이 가까이 하여 道를 어지럽히고 뜻을 미혹하게 하지 못한다.

一, 유생들은 뜻을 굳게 세우고 나아가는 길은 바르게 하며, 학업은 원대한 것으로 스스로 기약하고, 행실은 도의에 귀착하는 곳으로 삼는 자는 좋은 학문이 되는 것이 분명치 못하고, 얕은 저속하고 비천하며 취하고 버리는 것이 분명치 못하고, 얕은 저속하고 속된 것을 벗어나지 못하며, 뜻과 바램이 오로지 탐욕에만 있는 자는 나쁜 학문이 되는 것이다. 만일 행실이 괴이하여 예법을 비웃고, 남을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법제를 왜곡하며, 도리를 위반하고 추한 말로 부모를 욕하며,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예법을 좇지 않는 자는 院中에서 의논하여 쫓아낸다.

一, 유생들은 항상 각 齋에 조용히 있으면서 오로지 독서에 정신을 기울여 의심나고 어려운 바를 강론하는 일이 아니면, 부질없이 다른 방에 가서 쓸데없는 이야기로 날을 보내어 피차간에 생각을 거칠게 하거나 학업을 쉬어서는 안 된다.

一, 까닭없이 알리지 않고 자주 출입하지 말라. 무릇 의관과 언행은 서로 간절히 規責하기를 힘쓰라.

一, 成均館明倫堂에 伊川선생의 四勿箴과 회암선생의 白鹿洞規十訓과 陳茂卿의 夙興夜寐箴을 써서 걸었는데 이 뜻이 매우 좋다. 院中에서도 이것을 또한 벽에 걸어 서로 타이르고 일깨운다.

一, 책은 문밖에 나갈 수 없고 여자(色)는 문에 들어올 수 없으며, 술은 빛을 수 없고 형벌은 쓰지 못한다. 책은 나가면 잃기 쉽고, 여색은 들어오면 더럽히기 쉽고 술은 學舍에서 마땅한 것이 아니고 형벌이란 유생의 일이 아니다.(형벌은 유생이나 혹은 有司가 개인적 감정으로 바깥 사람을 때리는 일을 말함인데, 절대로 이러한 일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院에 딸린 下人들이 죄가 있어서 그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 작은 일은 有司에게, 큰 일은 上有司와 상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一, 院의 有司는 근처에 사는 청렴하고 재간있는 品官 두 사람으로 정하고, 또 선비 가운데 사리를 알고 몸가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우러러 복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골라서 上有司로 삼되 모두 2년만에 교대시킨다.

一, 유생과 有司는 힘써 예로써 서로 대하고, 공경과 믿음으로 서로 대우하여 한다.

一, 院에 딸린 하인을 온전히 돌봐준다. 有司와 儒生들은 항상 하인을 애호하며, 院의 일과 齋의 일 외에는 모든 사람이 사사로이 부리지 못하며 개인의 노여움으로 벌주지 못한다.

一, 서원을 세워서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가 文治를 숭상하고, 학교를 일으키며, 인재를 새로 길러내려는 뜻을 받들이니 누가 마음을 다하지 않겠는가. 이

IV. 晦·退 書院教育運動의 차이점

회암과 퇴계의 서원 및 이와 관련된 詩賦文記類는 다음과 같다.

<朱熹>	<李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白鹿洞賦(文集, 권1) ◦ 次卜掌書落成白鹿佳句(文集, 권7) ◦ 白鹿講會次卜丈韻(文集, 권7) ◦ 奏同尤延之廬山雜詠十四篇中 <白鹿洞書院>(文集, 권7) ◦ 武夷精舍雜詠(井序)(文集, 권9) ◦ 繳納南康任滿合奏稟事件狀(四)(文集, 권16) ◦ 申修白鹿洞書院狀(文集, 권30) ◦ 答白鹿長貳(文集, 권52) ◦ 學教貢舉私議(文集, 권69) ◦ 諭諸生(文集, 권74) ◦ 白鹿洞書院提示(文集, 권74) ◦ 滄洲精舍諭學者(文集, 권74) ◦ 白鹿書堂策問(文集, 권74) ◦ 白鹿洞書院學規(文集, 권74) ◦ 跋白鹿洞所藏漢書(文集, 권81) ◦ 跋金鷄陸主簿白鹿洞書堂講義後(文集, 권81) ◦ 白鹿洞成告先聖文(文集, 권86) ◦ 白鹿洞牒(文集, 권99) ◦ 潭州委教授措置巖鹿書院牒(文集, 권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白雲洞書院示諸生(文集, 권1) ◦ 陶山雜詠十八絕(文集, 권3) ◦ 書院十詠(文集, 권4) ◦ 陶山言志(文集, 권3) ◦ 書院成名以易東一絕見意(文集, 권5) ◦ 暮春歸寓陶山精舍記所見(文集, 권5) ◦ 易東書院示諸君三首(文集, 권5) ◦ 龜巖精舍(文集, 권5) ◦ 上沈方伯(文集, 권9) ◦ 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文集, 권12) ◦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文集, 권12) ◦ 答黃仲舉基郡守論書院事(文集, 권19) ◦ 進聖學十圖劉(第五白鹿洞規圖)(文集, 권7) ◦ 伊山書院記(文集, 권42) ◦ 伊山院規(文集, 권42) ◦ 易東書院記(文集, 권42) ◦ 迎鳳書院記(文集, 권42) ◦ 書李大用研經書院記후(後)(文集, 권43) ◦ 諭四學師生文(文集, 권41)

위의 文件을 비교하여 보면 그 형식·내용 및 양에 있어서 상이점이 많다. 晦·退의 서원교육운동이 주로 그들이 각기 외직에 있을 때 활발

제부터 이 고을에 오는 자는 반드시 서원 일에 대하여 그 제도를 도읍도록 하고 그 규약을 덜어냄이 없다면 斯文에 있어서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一, 아이들은 학업을 받거나, 유생을 부르러 오는 일이 아니면 德門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一, 기숙생들은 어른이나 아이를 물론하고 정해진 수효는 없으나 성적을 얻은 다음에 院에 들어올 수 있다.

히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암이 서원을 관학적 시각에서 교학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면 퇴계는 끝까지 사학적 관점에 섰다. 회암의 경우 潭州시대 이후에는 서원재건운동에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반면에 퇴계는 실질적인 관료생활을 떠난 50대이후 만년에 걸쳐 지방서원의 발전과 육성에 더욱 주력하였으며 끝까지 사학 아카데미즘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年譜·行狀과 위의 서원관계 기록을 종합하여 晦退 兩賢의 서원재건운동의 모습을 약술코자 한다.

가. 晦菴의 外職과 書院教育實踐

회암은 紹興 18년(1148) 18세에 진사가 되고 3년뒤 재적공낭으로서 泉州 同安 縣 主簿가 되었으며 <부임은 2년 뒤 24세시> 28년 潭州 南嶽廟監이 될 때까지 同安에 있으면서 현의 학사를 겸하였다. 그는 그곳에 서적 985권을 서고에 비치하고 士子들의 열람토록 하는 등 일시에 고을의 기풍이 순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20년의 屏居講學시대를 지나 45세(1179)때에 知南康軍事가 되었는데(부임은 이듬해 46세) (學我에다가 周敦頤의 사당을 세우고 程灝·程頤를 併祀하였으며 따로 五賢(陶潛·劉渙·劉恕·李常·陳瓘) 祠堂을 건립하는 한편 백록동서원 재건에 착수하였다.

군학 교수 양대법과 성자현영 왕중결 두 사람에게 위촉하여 서원이 낙성된 것은 이듬해 3월이다. 《朱子年譜》(王懋竑)에 의하면, 이 때 회암은 來賓과 募僚를 이끌고 교수·학생과 함께 釋采의 예를 행하였다. 그리고 서원에 刺額과 太上皇帝 御書의 石經板本 九經注疏를 奉請하는 한편, 江西諸郡에 고서적을 널리 수집토록하고 특별히 采地를 마련하여 獎學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공무의 여가를 틈타 몸소 諸生들과 질의·토론하기도 하고 산수간을 함께 산책하면서 우유자적하기도 하였다.

남강군에 3년간 복무한 뒤(52세) 광종 紹熙元年(1190) 61세 때 知漳州가 되었을 때 역시 전처럼 교학행정에 전심전력하였고¹⁵⁾ 소희5년 65세(1194)에 다시 知潭州荊州湖南路按撫로서 長沙로 부임하였다.¹⁶⁾ 회암은 「立朝四十日」의 짧은 중앙정계생활에 비하여 동안현→남강군→장주→담주의 외직기간동안 학자관료로서 많은 치적을 쌓았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 바로 교학진흥이었다. 「年譜」에 『선생이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학교를 일으키고 교화를 밝히어 사방의 학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고 한 것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회암은 평생동안 많은 精舍를 짓고 讀書講學의 터전으로 삼았다. 그가 말한 서원이란 精舍에서 독서강학하던 선현에 대한 추모의 念을 나타낸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卜築한 곳을 精舍라 부르고 서원이라고 부르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行狀》에 의하면 그가 만든 ‘精舍’는 다음과 같다.

- 。乾道 5년(1169) 39세, 건양에 한천정사를 지음.
- 。淳熙 2년(1175) 45세, 운곡에 회암을 지음.
- 。淳熙 3년(1176) 46세, 徽州 婺原縣에 紫陽書堂을 復興시키고 敬義二齋를 둠.
- 。淳熙 7년(1180) 50세, 武夷精舍를 지음.
- 。紹熙 3년(1192) 62세, 건양의 考亭(精舍)를 지음.
- 。紹熙 5년(1194) 64세, 건양에 竹林精舍를 지음, 뒤에 滄州精舍라고 쳐 부름.

유명한 학자들의 精舍는 歿後에 문인들에 의하여 立祠되고 다시 官의 힘을 빌어 서원으로 승격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회암 在世시에는 그의 학문이 僞學으로 몰려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주자학이 학문의 정통성을 인정받은 것은 그가 죽은 뒤 理宗·度宗 시대(1225~1273)이

15) 2년 뒤, 만아들 塾의 慘滅을 당하자 去官하고 建陽으로 돌아갔다.

16) 長沙에서는 道友, 張南軒祠를 세우고 다시 嶽麓書院을 修補하였다.

후이다. 따라서 중국의 서원은 대부분 官設이고 지방학교의 보조교육기관으로 존립하였으며 주자학부활기 이후에도 주자학唱明을 위하여 이러한 관학적성격은 계속 유지되었다.¹⁷⁾ 서원의 山長은 官에 의하여 임명되고 대개 이는 州學의 교수가 겸직하였다.¹⁸⁾

州學과 서원의 관학적 성격이 이처럼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그 뒤 많은 서원들의 관학으로 병합되고 남송시대 말엽에 이르러서는 서원의 쇠퇴를 초래하게 되었다. 회암의 「석고서원기」(文集, 권79)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기록되고 있으며¹⁹⁾ 그가 서원부흥을 결심하게 된 것 역시 서원의 옛 자취가 「鞠爲茂草」(文集, 권1「白鹿洞賦」)됨을 안타까워하였던 까닭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퇴계가 서원교육을 민간경영으로 「환경의 교육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던 것과 구별된다. 회암은 민간 주도에 의한 교육의 자율성이나 환경의 교육성보다는 향학의 미진함을 서원으로써 대체하려는 의도가 더욱 강조되었다.²⁰⁾ 이것은 그가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교화의 직접적인 치적을 염두에 둔 당연한 조치이기도 하지만²¹⁾ 송대 서원의 성격을 이해하고 주자서원교육관의 일단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勅額과 賜書를 청한 것은 국가공인의 교육기관임을 선포하는 서원전래의 遺風이고 회암이 唱發한 것은 아니다.

17) 《南宋文範》, 권46, 「撫州臨汝書院記」(我理宗皇帝是之躋 從祀表章其學 天下學士大夫 是以立之書院).

18) 《續文獻通考》 권50 <學校考>.

19) 「學校之官遂徧天下 而前日處士之廬無所用 則其舊迹之蕪廢亦其勢然也」.

20) 《朱子文集》 권16, 「繳納南康任滿合奏稟事件狀四」

「經由其地 山川環合 草木秀潤 眞閒燕講學之區(…) 先王禮義之官 所以化民成俗之本者 乃反寂寥希闊 合軍與縣 僅有三所老已 然則復修此洞 未足爲煩」
同 권 99 「白鹿洞牒」 (觀其四面山水 清邃環合 無市井之喧 有泉石之勝 眞群居講學迹著書之所)

21) 《朱子文集》 권30, 「申修白鹿洞書院狀」

「乃廢壞不修至如此 長民之吏 不得不任其責 除已一面計置量行修立外(…)」 「(小貼子) 本軍已有軍學 可以養士其白鹿洞所立書院 不過所屋三五間 姑以表識舊迹 使不至於荒廢埋沒而已 不敢妄有破費官錢 傷耗民力」

나. 退溪의 外職과 書院教育實踐

퇴계의 첫 외임지는 舟陽이다. 48세(1548) 정월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에 형인 온계(濬)가 忠淸道伯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가 한 도에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청하여 풍기군수로 옮겼다.

이듬해(1549) 12월에 백운동서원의 扁額과 책을 내려달라는 서장을 쓰고(上 沈方伯)(「紹修書院」이라는 賜額과 사서삼경·성리대전을 頒降 받은 것은 1551서년이다) 辭狀을 세번이나 올려도 회답이 없자, 50세 되던 정월에 任所를 무단히 떠나버렸다.²²⁾ 그러므로 퇴계의 外補는 만 1년 간의 주양·풍기 고을의 군수가 고작이다.

그러나 <上沈方伯書>는 우리나라 사액서원의 단서를 여는 글이고 서원교육론의 효시이다.

《퇴계년보》에 나타난 서원 관계 사항은 아래와 같다.

- 54세(1554) : 5월에 內賜받은 性理群書를 영천에 있는 鄭圃隱先生의 臨臯書院에 收藏케 함.
- 56세(1556) : 「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를 군수 안상에게 보냄.
- 57세(1557) : 3월 문인 琴應燾등이 精舍의 건립을 청함. 여러번 거절하다가 도산에 卜地함.
- 57세(1557) :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를 군수 金慶言에게 보냄.
- 같은 해 4월에 鰲潭으로 가서 易東書院 新築趾를 살핌.
- 59세(1559) : 7월에 黃俊良이 절의한 朴松堂(英) 所著, <白鹿洞規集解>의 착오처를 辨釋함.
- 같은 해 겨울에 「伊山書院記」를 짓고 院規를 정했으며 扁額을 씀.
- 60세(1560) : 7월 下澗에 「迎鳳書院記」를 지음.
- 60세(1560) : 11월에 陶山書堂이 落成됨(堂은 三間, 軒은 巖栖,

22) 무단히 棄職한 탓으로 「奪告身二等」의 처벌이 내려졌다. 「辭豐基郡守上監司狀」은 1548년 9월에 三狀은 11월(二狀은 缺傳)에 냈고 「擅棄豐基郡守推考緘答狀」은 이듬해 정월에 올렸다. (退溪集, 권8). 이때 퇴계는 上溪서편에 寒栖菴을 짓고 「身退安愚分 學退憂暮境 溪上始定居臨流日有省」이라 읊었다.

齋는 玩樂, 精舍七間은 隴雲이라 命名)²³⁾

- 61세 (1561) : 3월 陶山書堂 동쪽에 節友社 (壇) 를 짓고 松·竹·梅·菊을 심음.
- 61세(1561) : 11월 冬至日에 「陶山記」와 「陶山雜詠」(紀事七言一首·七言十八絶)을 지음.
- 65세(1565) : 玩樂齋의 壁上에 「敬齋箴圖」·「白鹿洞規圖」·「名堂室語」 등을 써서 게시함.
- 65세(1565) : 「書院十詠」 (竹溪·臨皇·文憲·迎鳳·丘山·藍溪·伊山·西岳·晝巖·總論諸院)을 지음.
- 66세(1566) : 왕이 讀書堂의 선비에게 「招賢下至歎」一수(首)씩을 짓게 하는 한편 礪城君 宋寅을 시켜 陶山圖를 그리게 하고 그림 위에 「陶山記」와 「陶山雜詠」을 각각 써서 병풍을 만들게 함.
- 67세(1567) : 10월, 「研經書院記後」를 지음.
- 70세(1570) : 5월 문인과 易東서원에서 모임.
 " : 도산서당에서 「啓蒙傳疑」를 講함.
 " : 7월, 역동서원에서 「心經」을 講함.
 " : 8월, 역동서원 落成에 참석함.
 " : 9월, 도산서당에서 「心經」과 「啓蒙」을 講함.

퇴계가 서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관학 교학상의 문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사성으로서 있을 때 내린 「諭四學師生文」은 당시의 관학적 교학체계가 어느 정도 해이하였는가를 알려준다.²⁴⁾ 「不深於義理·昧於師生之分·妄生輕侮之心」되는 까닭은 사생의 「不職之過」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교육 제도로서는 교육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고 보아 서원교육을 제창하였다. 그리고 監司와 守

23) 퇴계는 <陶山雜詠>에서 命名의 유래를 『玩樂齋取朱先生名堂室記 樂而玩之足以吾身而不厭之語也(…) 巖栖軒取雲谷詩 自信久未能 巖栖冀微效之語也』라 하여 晦菴을 사모하는 것으로 하였다.

24) <<退溪集>> 권41, 難著·(觀今之學校爲師長爲士子 或未免得失謂學古誼士君子知辭受之分者忽如是乎其尤甚者造爲○譏之言 流布搢紳之間(…) 仄聞四學儒生 視師長如路人 視學宮如傳舍 堂時具禮服者十無二三 白衣黑笠唯唯往來 及其師長之人受業請益 姑不言至以行揖禮 爲憚爲恥偃臥齋中 睨而不出(…)).

습은 「서원의 作養하는 것만을 보살필 뿐, 번거로운 조목으로 구속하지 말도록」(上沈方伯)건의하였다. 이는 對書院교육정책에 있어서 「支援은 있되, 통제는 없는」 교육지원책이다. 그러자면 儒臣 가운데 덕망과 經術이 있는 사람을 골라 수령으로 삼고 서원육성의 책임을 맡아야 하며, 수령은 각 고을의 명망이 있는 선비를 예방하여 그들로 하여금 諸生을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擬與豐基郡守書院事) (擬與榮川守紹修書院事) 따라서 서원의 건립은 사림의 發議에 의하여 수령이 「凡雲費功或專或助」²⁵⁾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지방유지들이 「協心商度 各出財力有差」하였다.(易東書院記)

퇴계는 <書齋>와 <書院>의 명칭에 그다지 구애하지 않았다. 이산서원이 창건될 때 扁額을 받으려온 張壽禧가 『우리 고을의 先正가운데 立祠할 분이 아직 정하여지지 못하였으니 「書齋」라고 부름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물으니, 퇴계는 「觀其五學規模 實倣於書院之制 何必避其名 而遷就於書齋之稱乎」라고 하면서 지명을 따 「이산서원」이라 하였다. 이는 「精舍」와 「祠廟」가 통합하여 서원이 되었다는 종래의 설이 퇴계의 서원 교육관과는 반드시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퇴계에 의하면, 有祠·無祠를 가릴 것 없이 사학교육의 實을 기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면 서원이라 불러도 좋다는 것이다. 퇴계 이후 조선서원이 立祠·祭亭으로 인한 교육기능의 상실을 두고 본다면 이러한 퇴계의 서원관은 주자의 서원관을 정당하게 계승한 것이다. 다만 서원의 운영 면에 있어서 官의 통제를 억제하고 민간 주도의 사학정신을²⁶⁾ 고수하려고 한 것이

25) 易東書院 창건 시에 禮安縣令 郭越은 「廢寺社田之當還官者及置他田畝若干結 良賤納者가 충당하였다. (易東書院記) 그리고 伊山서원 창건 시에는 榮川군수 安瑞이 「量事功計徒役辦需費」하였으며 父老諸生이 이에 감격하여 「出穀與物有差」하였다. 건물이 준공된 뒤에 贍穀이 수백여석이고 良賤이 若干口였다(伊山書院記).

26) 퇴계는 <伊山書院記>에서 「三代之學 皆所以明人倫也 至於後世聖王不作古道崩壞而文詞科舉祿之習 潰人心術 馳狂瀾 而莫之回則 內而國學 外而鄉校 皆昧然莫知其教漠然無事乎學矣. 此有志之士 所以發憤永嘆 抱負墳策 而遁逃於巖薮澤之中 相與講所聞 以明其道 以成己而成人則 書院之作於後世 勢不得不然」이라 하였다.

커다란 차이점이다. 이것은 퇴계를 필두로 하는 조선사림파의 氣節과 관련된다. 사림파는 사학 아카데미즘의 淵藪로서 또는 사림정신의 배양지로서 종적으로는 학통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횡적으로는 학파의 연계와 유대를 이루고자 하였다.

국학이나 향교는 文具만을 갖추었을 때 퇴계가 선비교육의 터전으로서 서원을 주목하게 된 것은 단순히 宋朝故事를 조선에 재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명분을 그 곳에 의탁하여 인간교육의 참된 길을 서원교육에서 찾으려는 노력이었다.²⁷⁾

V. 結 言

이상 고찰한 바와 같이, 주회암과 이퇴계의 서원관은 明人倫·正其業을 위한 교육기능을 회복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회암은 서원교육을 州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였다면, 퇴계는 향학과는 다른 사학으로서 관의 지원은 받되 어디까지나 민간주도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육성코자 하였다. 그리고 회암의 서원교육론은 전대의 서원발달사적인 계승·발전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퇴계는 주자교학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적이고 논리적인 서원교육론을 다수 발표하였다. 특히 「上沈方伯」·「擬與榮川豐基郡守書院論事」는 서원교육에 관한 이념·방법·실천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글이다.

주회암의 백록동서원이 中·韓·日 사상과 교육에 끼친 공적은 다대하지만, 16세기 이후 조선성리학의 발전과 사학창달에 끼친 영향은 퇴계의 서원교육운동으로 말미암아 不動의 정신적인 指南으로 자리하여 왔다. 그러나 주회암의 백록동서원이 그대로 조선의 백운동서원으로 성

27) <迎鳳書院記>, 「降及後世 教壞而學崩 則國學鄉校 僅有文具 而家塾黨庠之制 寥寥焉 至使篤志願學之士 抱墳策而無所於○ 此書院之所由以起也. 夫書院之與家塾黨庠制雖不同義則同○ 其有關於風化也(…) 我東書院亦昉於今日皆所以廣教思敦化原也.」

격이식이 되지 않은 까닭이 바로 각국의 문화적 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주자학의 계승과 발전으로서의 퇴계학의 학문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일조가 되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